

트랜잭션 유입 증가 현상 해결 보고서

BoB 10기 디지털포렌식 10기 이호준

1. 현상 분석

1.1 문제 상황

현재 사내 정보계에서 데이터 처리량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 데이터 요청은 고객의 동의를 받은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각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에 출력된 정보를 긁어오는 방식인 스크래핑으로 추정되며 정상적인 외부IP에서 요청한 고객정보를 조회 행위였다. 해당 현상으로 인해 트래픽이 과부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안관련 관제 업무 등에도 지장을 줄 여지가 크므로 많은 양의 트랜잭션의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1.2. 관련 배경

위 트랜잭션 유입 증가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이 크다.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인해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 및 연구 등의 제한적인 목적에 대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하고 익명정보의 경우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게 된다. AI 및 빅데이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한 요즈음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경우가 늘어나 트랜잭션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 해결방법

(1)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여러 금융 업체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재무 현황,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 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일일이 개별 금융사를 찾지 않아도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의 금융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 현황과 카드사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하나로 관리한다면 정보 획득을 위해 여러 곳으로 뿌려졌던 트랜잭션들이 한 곳으로만 유입되기에 효과적인 트랜잭션 관리가 가능해진다.

(2) API 방식의 정보 제공

기존의 정보 수집 방법으로 사용됐던 스크래핑 방식은 금융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에 출력된 정보를 긁어오는 방식이다 보니 원하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까지 요청하게 되어 트래픽 낭비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API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보 요청자는 요청한 금융사의 서버를 호출해 원하는 데이터를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 및 수집할 수 있다.